



art

INCULTURE

2007 6

ART WAR in EUROPE

여름-유럽 대공습-한국미술
베니스에서 바젤, 바덴바덴, 런던까지
6개국에 상륙한 120인의 전사들



ITALY

2007 베니스비엔날레 6. 10~11. 12

이형구 자르디니 내 한국관

이우환 Resonance

베니스 산마르코 광장 6.10~11. 21



사이비 과학자의 항해

글 | 이선화 기자

베니스비엔날레 시즌이 돌아왔다. 총감독이 선정한 본전시 참여 작가들 및 주목해야 할 국가관을 미리 살펴보는 200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1인 카드' 이형구와의 인터뷰로 한국관 미리보기를 특별 제공한다.

2007 베니스비엔날레가 오는 6월 10일 화려한 막을 열고 11월 12일까지 약 5개월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총감독은 현 예술계 학장이자 필라델피아미술관의 근현대미술 분과 자문 큐레이터, 미술사학자, 비평가로 널리 알려진 로버트 스토(Robert Storr). 베니스비엔날레 사상 최초의 미국인 총감독으로 선정된 로버트 스토는 1990년부터 2002년까지 모마(MoMA)의 회화, 조각분과 큐레이터로 엘리자베스 머레이, 게르하르트 리히터, 막스 벡크만, 토니 스미스, 로버트 라인만 등의 굵직한 전시들을 기획한 바 있다. 미술관에서의 오랜 현장 경험과 아카데미의 양 진영을 폭 넓게 넘나들며 활동하는 그가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를 통해 어떠한 이슈를 만들어 낼지, 그 비장의 카드에 전세계 미술인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성과 직관의 조우

제52회 본전시 주제는 <감각적으로 사고하기(Think with the Senses)-정신으로 느끼기(Feel with the Mind). 현재 시제의 예술



(Art in the Present Tense)이다. 전시 기획서에 따르면, 로버트 스톤은 플라톤 이후부터 전승된 철학자들의 이분법적 사고를 숙고해 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했다고 한다. 정신과 신체, 이성과 무분별, 사고와 감정, 지성과 감각 등의 극명한 대립항에 대한 재고의 차원으로, 그는 사고와 감성의 상호 교류에 주목했다. 훌륭한 미술 작품은 단순히 관람자를 피동적인 대상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관람자들을 사고하도록 이끌고, 감각적인 측면을 자극하기 때문. 결국, 이같은 사고와 감성의 밀접한 상호 관련성을 주지하며 그는 지성과 직관의 조화로운 충들을 2007 베니스비엔날레의 화두로 삼았다.

자르디니 내 이탈리아관과 아르세날레 본전시에 참여하는 작가 수는 총 96명. 프레드 샌드백(Fred Sanback), 소피 칼(Sophie Calle), 펠릭스 곤잘레

스-토레스(Felix Gonzalez-Torres), 엘스워스 켈리(Ellsworth Kelly), 브루스 나우먼(Bruce Nauman), 지그마르 폴케(Sigmar Polke),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 수잔 로센버그(Susan Rothenberg), 피에르 위그(Pierre Huyghe) 등이 눈에 띈다. 총감독의 영향 탓인지 참여 작가 중 미국 작가의 수가 23명에 이르고, 이전 베니스비엔날레보다 회화 작품의 수가 훨씬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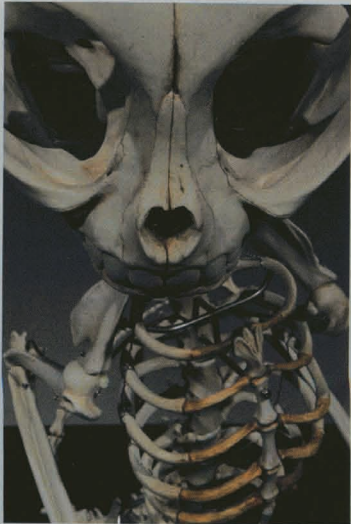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중동 지역의 작가들을 제외하면 서유럽과 미국으로 작가 선정이 편중된 면도 없지 않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의 양 푸동(Yang Fudong), 첸 젠(Chen Zhen), 양 첸중(Yang Zhenzhong), 일본의 유키오 후지모토(Yukio Fujimoto), 이즈미 카토(Izumi Kato), 히로하루 모리(Hiroharu

왼쪽 <머스 아니마투스>, 오른쪽 <펠릭스 카투스 아니마투스> 혼합재료 2006

왼쪽 페이지
위 · 양 푸동 <Seven Intellectuals in Bamboo Forest, Part 2> 영상 2004
아래 · 토메르 가니하르 <Help #2> C-Print 2006



“단독무대여서 마음이 더 편합니다”



위 · 〈Altering Facial Features with Pink+H1〉 디지털 프린트 120×150cm 2003
아래 · 〈펠리스 카투스 애니마투스〉 혼합재료 127×58×64.8cm 2006

베니스로 출국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듯했다. 연남동 작업실에는 며칠 후 베니스로 우송돼 한국관을 메울 작품들이 커다란 나무 박스에 깔끔하게 팩킹되어 있었다. 한국관의 주인공은 과연 이번 베니스비엔날레를 위해 어떤 작전을 수립해 놓았을까.

art 한국관에서의 단독 무대다. 감회가 어떤가.

이형구(이하 이)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올 줄은 몰랐다. 운이 좋은 것 같다. 커미셔너에게 감사드린다.

art 안소연 커미셔너와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나.

이 전혀 없다(웃음). 지난 해 리움에서 열린 〈아트스펙트럼〉전(2006.2. 16~5. 14)에서 간단히 인사 정도만 나눴을 뿐이다. 사실 내 작품을 그리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다(웃음). 커미셔너로 임명된 후 다른 국가관의 선정 작가들을 체크해 보고 강력한 비주요로 승부수를 던질 생각으로 나를 선택했다고 들었다.

art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이 남들은 외국 전시하면 좋겠다고 하는데, 조각하는 당사자에겐 작품 설치는 막노동이다. 항간에 돌리는 바로는 개인전 경력이 2회 뿐인, 나이 어린 작가가 선정됐다는 식의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다. 내 전시를 보고 나서 알아 물어봐라 하고 말하고 싶다. 전시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자격 조건에 더욱 부합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작가마다 전시 전략과 방법이 모두 다르다. 지난 2004년 성곡미술관에서의 개인전은 지난 5년 동안의 작업물을 풀어낸 것이다. 또한 작년 개인전에서의 〈아니마투스〉 시리즈는 2000년부터 아이디어가 시작된 것으로 2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노동집약적으로 완성해 낸 것이다. 작가는 죽기 직전까지 작업을 한다. 때문에 전시횟수는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 내가 추구하는 길은 그렇다.

art 현장에서는 한창 작업이 진행 중인가.

이 그렇다. 나는 5월 22일 베니스로 출발해 곧바로 설치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은 공간 디스플레이 중이다. 〈아트스펙트럼〉전에서 함께 일했던 리움 측 설치팀이 도와주고 있다.

art 전시 구성 방식이 궁금하다.

이 전시는 크게 4개 공간으로 나누어진다. 크게는 블랙과 화이트로 구분 된다. 블랙 공간은 이번엔 나오는 〈아니마

투스〉 연작 위주로, 화이트는 이전의 〈오브젝츄얼스〉 연작으로 꾸밀 계획이다. 각 공간이 서로 어우러져 그렇게 상반된 느낌을 풍기지는 않을 것이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주하는 메인 공간은 신작 통과 제리가 들어갈 것이다. 정확한 작품명은 〈머스 애니마투스(Mus Animatus)〉와 〈펠리스 카투스 애니마투스(Felis Catus Animatus)〉다. 국내에 공개되지 않은 신작이다. 〈아니마투스〉 연작은 공간의 크기에 따라 포즈가 많이 달라진다. 이번 신작은 제리가 틈을 만나 “뽕”하고 도망가기 직전의 포즈를 포착한 작품이다. 또한 원형의 공간에는 작업하면서 나온 메모, 드로잉, 사용하는 재료들, 뼈조각 등을 일종의 도큐멘테이션처럼 진열할 것이다. 참, 수술대도 들어간다.

art 전시에 들어가는 총 작품 수는 얼마나 되나. 뼈조각을 일일이 셀 수는 없겠지만.

이 메인 공간에 작품 2개가 들어가고, 도큐멘테이션에는 뼈조각 3피스(piece), 랩 시리즈에는 헬멧 5종류, 핸드 디바이스 2종류가 전시된다. 각각의 작품을 독립적으로 볼 수 있지만, 나는 이것을 하나의 설치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를 제시하기는 힘들다.

art 베니스비엔날레 도록에 영상 작업도 있던데...

이 공간 하나에 HD 비디오 작품이 들어간다. 〈아니마투스〉 연작과 〈오브젝츄얼스〉 연작을 절충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작업이 나올 수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첫 개인전 때는 뉴욕편 비디오 작업을 보여준 적이 있었다.

art 그렇다면 이번 영상물의 배경은 베니스가 되나.

이 그렇다. 뉴욕편은 연출 없이 찍었다. 사람들 반응을 체크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베니스편은 영화처럼 스토리보드를 짜서 연기를 했다. 수많은 관광객으로 분주한 베니스란 관광 도시를 고독한 죽음의 도시로 표현했다. 뼈라는 것과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밤과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혼자 주연하고 감독하고 다 했다(웃음). 사실 대낮에도 찍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배제시켰다. 일부가 도록에 들어가긴 하지만, 앵글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조명 등의 퀄리티는 다소 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신경을 쓴 부분은 사운드다. 음악은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의 장영규 씨가 도움을 주었다. 작업할 때 나오는 소리를 특수



장비를 가져와 담았다. 달그락 거리는 소리, 사포질 하는 소리, 실험하느라 액체를 따르는 소리 등을 조합해서 다소 히치콕 같은 공포스런 사운드를 영상물의 배경으로 깔았다. 상영시간은 5분 19초다.

art 퍼포먼스가 궁금하다. 가장 기대되는 것 중 하나다.
이 안쪽의 네모난 공간은 실험실(lab) 시리즈로 꾸밀 예정이다. 한국관 오프닝 날에 그 곳에서 헬멧을 착용하고 퍼포먼스를 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것은 알려줄 수 없다.

art 그렇다면 시나리오 구상을 마친 상태인가.
이 아니다. 오픈 직전까지 계속 생각할 것이다. 사실 내가 이런 것을 할 줄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다(웃음). 전에 헬멧 쓰고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다. 나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전 퍼포먼스 때는 너무 춥고 갈증이 나서, 나와 서로 사인이 되는 친구에게 와인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었다. 즉석에서 스트로우를 질라 튜브를 만들어 와인을 마셨다. 핏빛의 와인이 튜브를 따라 흘러가는 것을 지켜 본 관람객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하더라. 여하튼 베니스에서도 그리

큰 난리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퍼포먼스라는 것은 행위의 주체자나 관람객이 서로에게 민망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지 않다. “재 왜 저래”처럼(웃음), 이번 비디오 작업하면서 움직임 하나조차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됐다. 퍼포먼스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이전 같은 해프닝이 일어날 것인지는 실제 상황에 맞닥뜨려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정적인 것이 더 강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 해 두겠다.

art 베니스 도록에 실린 최재천 교수의 글을 읽었다.
이 학술적으로 너무 잘 써 주셨다. 무척 마음에 든다. 유전자 쪽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도 재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 작업을 본 학자가 반응을 해서 글을 쓰고, 나 또한 그 글을 읽고 다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지 않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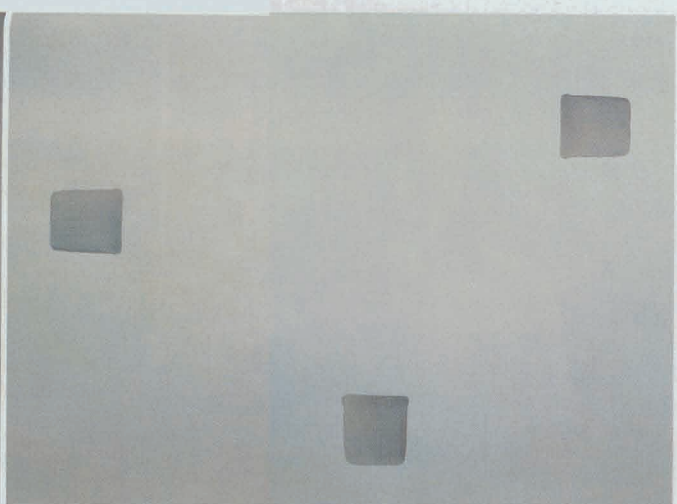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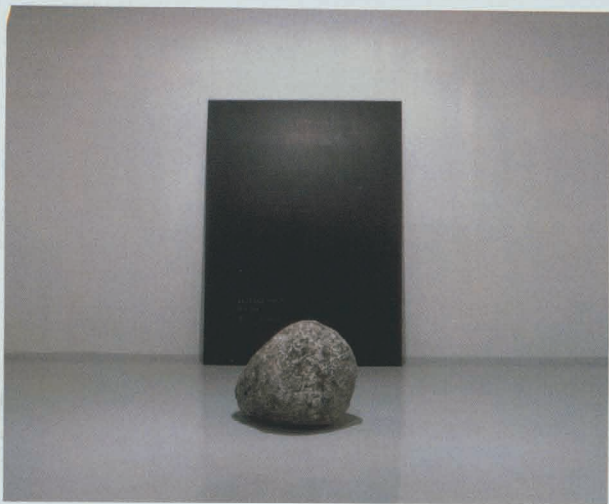
art 단독 무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전혀 없다. 값진 기회이기에 그냥 좋을 뿐이다.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무대에 선다. 단독 무

대이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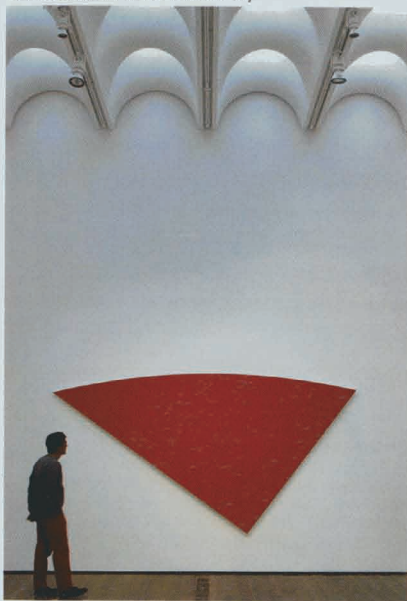
art 베니스비엔날레 이후 다른 일정이 있다.

이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에 갈 예정이다. 아라리오갤러리로 만나지는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박물관에 토크와 제리 같은 캐릭터 뼈가 없다고 하면서 사고 싶다는 내용이었는데, 차후 전시 일정을 논하는 쪽으로 조율되고 있다. 아직 일이 성사가 된 상태는 아니다. 이전에 예일대의 피바디뮤지엄 같은 곳에서 전시해 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만든 가짜 뼈와 실제 공룡 뼈가 동급이 된다는 프로젝트는 생각만 해도 재밌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이선화 기자

이형구 1969년 포항 출생. 홍익대, 예일대 대학원 졸업. 개인전 〈Animatus〉(아라리오갤러리 천안, 2006), 〈The objectuals〉(성곡미술관, 2004) 및 단체전 〈아트스펙트럼〉(삼성미술관 리움, 2006), 〈기브 미 웰터〉(영국 유니온갤러리, 2006), 〈아름다움〉(성곡미술관, 2004), 〈Fake & Fantasy〉(아트센터나비, 2003) 등 참여. 2003년 썸지 레지던스 및 2001년 미국 스코히건스쿨 레지던스 참여.



위 왼쪽·이우환 <관계항> 철판, 돌 280×200×15cm 1979/2005
오른쪽·이우환 <조음> 캔버스에 유채 260×338cm 1997
아래·엘스워스 켈리 <Red Curve VI> 캔버스에 유채
188.6×356.9cm 1982 ©Ellsworth Kelly



Mori, 타바이모(Tabaimo), 토모코 요네다(Tomoko Yoneda), 파키스탄의 나리니 마라니(Nalini Marani), 인도의 마논 드 보에르(Manon De Boer), 리야스 코무(Riyas Komu) 등이 참여 작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한국 작가의 이름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우환만이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행사의 일환으로 개인전을 열 뿐이다.

<공명(resonance)>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우환 개인전은 산 마르코 광장의 팔라조 팔롬보 포사티(Palazzo Palumbo Fossati)에서 오는 6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계속된다. 전시 큐레이팅은 제 45회 베니스비엔날레 총감독이었던 아킬라 보니타올리바가 맡았고, 회화 및 설치 작품이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국가관 단독 선정 작가들의 선전

한편, 올해 비엔날레의 국가관 수는 총 77개에 달한다. 자르디니를 중심으로 베니스 전역 곳곳에서 열리는 국가관 전시에 올해 단독으로 선정된 작가 수가 많다. 오스트리아의 허버트 브랜들(Herbert Brandl), 캐나다의 데이빗 알트메지드(David Altmejd), 크로아티아의 이바나 프랑크(Ivana Franke), 덴마크의 트로엘 뵈르셀(Troels Wörsel), 프랑스의 소피 칼, 독일의 이사 겐젠켄(Isa Genzken), 그리스의 니코스 알렉시오우(Nikos Alexiou), 헝가리의 안드레아스 포가라시(Andreas Fogarasi),

일본의 마사오 오카베(Masao Okabe), 네덜란드의 애노우트 미크(Aernout Mik), 폴란드의 모니카 소스노우스카(Monika Sosnowska), 미국의 펠릭스 곤잘레스 토레스, 영국의 트레이시 에민(Tracey Emin)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관 역시 이형구 작가의 단독 무대다.

한국관 커미셔너는 삼성미술관 리움의 학예연구실장 안소연이다. 송미숙 박경미 김홍희 김선정에 이은 또 하나의 여성 커미셔너로 선정된 안소연은 1995년 한국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단독 작가 시스템을 결정했다. 이형구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그는 “수많은 볼거리 가운데서 관람객들이 선명히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인상적인 전시를 기획하고 싶었다. 전시에 대한 평가는 그 다음 일이고, 우선은 한국관에 전시된 작품이 미술인들 사이에서 기억되고 거론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본전시장과 국가관 전시,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의 다양한 볼거리를 장착한 2007 베니스비엔날레가 전세계 관람객들을 맞을 준비선상에 섰다. 처음 시들어가는 비엔날레를 향한 아쉬움은 일단 유보시키자. 그리고 올해 베니스비엔날레를 통해 얼마나 뜨겁고 건강한 논쟁이 오고 갈 것인지, 이 대규모 축제를 즐길 준비 태세에 돌입해 보길 바란다. 미리부터 기대를 저버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만 기억하면서 말이다. ●